

김옥찬 “일사천리 사업 강화… 中企 판로지원 1000억 목표”

(홈쇼핑 대표)

(3년)

홈쇼핑 신년 사업계획

중기성장실 → 중기지원본부 격상
기업 메가브랜드 육성 적극 지원
“매출향상 도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홈쇼핑이 중소기업 판로지원에 더욱 앞장선다.

대표적 판로지원 사업인 ‘일사천리(一社千里)’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하고, 소비자 반응이 좋은 상품은 일반 방송으로 전환해 ‘중소기업 메가 브랜드’로 적극 육성한다.

일사천리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전담하는 기존의 ‘중기성장실’을 ‘중기지원본부’로 격상해 역량도 강화한다.

11일 홈쇼핑에 따르면 김옥찬대표(사진)는 신년 사업계획을 발표하면서 “일사천리 프로그램을 통해 향후 3년간 1000억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옥찬 홈쇼핑 대표

이 프로그램은 우수 기업 발굴부터 입점, 판매까지 ‘일사천리’로 중소기업 판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시작했다. 지난 10년간 1121개 지역 우수 중소기업이 홈쇼핑을 통해 제품을 판매했다. 특히 영업 유통망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중소기업들이 저렴한 수수료로 TV홈쇼핑에 진출할 수 있도록 배려해 기업 현장에서 호응이 매우 높다.

홈쇼핑은 당장 올해부터 정규편성으로 운영하는 히트상품 수를 확대하고, 편성도 300여 회로 늘려 일사천리 사업을 통해 연간 300억원의 매출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에도 ▲지방자치단체 추천 ▲상품추천위원회 추천 ▲전국 1등 농어촌 상품 ▲우수 제조기업 ▲모닝드림마켓 5개 분야에 걸쳐 우수 중소기업 상품 162개를 론칭해 총 300억원 이상의 판매고를 올린 바 있다.

판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메가 브랜드’도 적극 육성한다.

지난해에만 부자전복(그린수산), 마더킴 장조림(유웰데코 주식회사), 윈터치 코너선한(컴퍼니에이알) 등 새로 론칭한 43개 상품을 일반방송으로 전환하는 등 현재까지 일사천리 사업을 통해 80여개 상품을 정규 일반 방송으로 전환해 고객들에게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관련 상품 선정을 위해 매년

80회 이상 진행해왔던 ‘1대1 MD 상담회’도 더욱 확대한다.

당장 오는 3월부터 일사천리 담당 MD들이 직접 주요 광역시·도를 찾아 지역의 우수 상품을 발굴하고, 판로지원을 위한 멘토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 일사천리 및 중소기업 협력사를 대상으로 행사장 판매부스 무상 제공, 홍보 등 중소기업 상품 박람회 참가도 지원한다.

김옥찬 대표는 “홈쇼핑은 일사천리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상품을 발굴해 ‘중소기업과의 상생’이라는 설립 취지 실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 협력사들이 홈쇼핑의 판로지원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매출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홈쇼핑은 갈수록 격화되는 유통환경 상황에서도 연결기준으로 매출액이 2018년 4039억원, 2019년 4074억

원, 2020년 4389억원 등을 기록하며 순항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의 경우 9월까지 누적 매출은 전년(3209억원)보다 다소 줄어든 3124억원을 올렸다.

TV홈쇼핑, 오픈마켓, 포털, 백화점, 할인마트 등 거대 유통사들의 치열한 경쟁에 따른 시장 여건은 올해도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20년 6월 취임해 올해로 3년째 홈쇼핑을 이끌고 있는 김 대표는 중소기업 판로지원이라는 본분에 충실하는 동시에 소비자 니즈에 맞는 상품 다양화, 그리고 모바일·디지털 분야 강화를 통한 추가 성장 모색 등에 중점을 두고 조직을 운영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민간 소각전문시설, 10년간 국가온실가스 1200만t 감축

2000만t 산업폐기물 안정적 처리
원유 환산시 1.9조 비용 절감 효과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 민간 소각전문시설이 지난 10년간 약 1200만 톤(t)에 달하는 국가온실가스를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원유로 환산하면 39억2000만 리터(l)의 수입대체효과와 1조90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한 것과 맞먹는다.

민간 소각전문시설들이 10년간 총 2000만t이 넘는 산업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면서 얻은 결과다.

11일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이 발표한 ‘민간 소각전문시설 소각열에너지 생산·이용 실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이들 소각전문시설이 처리한 산업폐기

물량은 2022만t으로 집계됐다.

또 이들 폐기물을 태워 얻은 소각열에너지는 4571만 기가칼로리(Gcal)에 달하고 이에 따라 10년간 총 1212만t의 온실가스를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의 변화도 상당하다. 연도별 소각 처리량은 2011년 당시 161만t에서 2020년엔 236만t까지 늘었다. 2020년 기준으로 52곳의 소각전문시설들이 처리한 규모다.

또 이 기간 소각열에너지 생산량은 326만Gcal→583만Gcal, 온실가스 감축량은 76만t→179만t으로 각각 증가했다. 원유 대체량 역시 2억4000만 l에서 5억7000만 l로 두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민간시설이 소각을 통해 실제 국가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양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게 자원순환에너

지공제조합측의 추산이다. 소각장에 들어오는 폐기물 중 불에 타지 않는 불연물 비율이 26.7%에 달해 발생하지 않은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계산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현행법상론 폐기물에서 불연물을 사전에 분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소각로에 그대로 투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폐기물 소각전문시설의 온실가스 발생량은 반입된 폐기물 양을 기준으로 계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타지 않은 돌과 흙, 철 등이 고스란히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산출되고 있는 것이다.

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관계자는 “불연물에서 불합리하게 발생한 1263만t의 온실가스과 소각열에너지 생산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인 1212만t을 합

산하면 지난 10년간 전체 온실가스 감축량은 2475만t에 달할 것으로 예측돼 가연성폐기물만을 소각할 수 있도록 ‘불연물 사전분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조합은 산업폐기물 소각전문시설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소각열에너지 생산·이용 실태를 매년 발표하고 있다.

이민석 이사장은 “‘소각열에너지’는 수입에 의존하는 다른 열원과 달리 기업들이 연료 구입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도 매우 유익한 에너지”라면서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선 ‘자원순환기본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에 소각열에너지를 ‘실체화된 에너지’로 법제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070 피싱문자 주의하세요”

설 명절을 앞두고 ‘07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재난지원금 등 각종 자금을 신청하라는 피싱문자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1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따르면 피싱 문자는 재난지원금, 생활안정자금, 사업자금, 마이너스통장 등을 지원한다며 ‘신용보증재단’으로 명시하는 등 자칫 소상공인이 속기 쉬운 내용으로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신보중앙회 관계자는 “신용보증재단은 자금신청을 하라는 광고문자를 보내지 않는다”며 “특히 고금리 대출을 대환해 준다거나 보증서를 받기위해 서류작업이 필요하다며 수수료 등을 요구하는 경우엔 100% 보이스 피싱”이라고 설명했다. /김승호 기자

중진공, 중소벤처-우수인재 연결 ‘일자리매칭플랫폼’ 오픈

맞춤형 일자리 매칭 서비스 제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벤처기업과 우수인재 간 맞춤형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본격 시작한다.

중진공은 기업인력애로센터에 중소벤처기업의 구인구직 집합이 역할을 할 ‘일자리매칭플랫폼’을 새로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중진공은 지난 2017년 3월부터 전국 16개 지역본부에 중소벤처기업 구인·구직 전문 기관인 기업인력애로센터를 설

치하고, 청년 등 구직자와 구인 중소벤처기업을 맞춤형으로 연결해주고 있다.

기업인력애로센터는 일자리 매칭을 위해 2018년부터 민간 채용포털 시스템을 임차해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자체 시스템을 개발해 지난 5일 플랫폼 구축을 끝냈다.

일자리매칭플랫폼 주요 기능으로는 ▲전문 상담사를 통한 구인·구직 매칭 ▲AI 추천 매칭 ▲AI 모의면접, 인적

성 검사 등 취업 지원 서비스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 플랫폼 제공 등이 있다.

기존 민간 임차 시스템이 전문 상담사를 통한 구인·구직 매칭만 가능했다면, 신규 플랫폼에선 기업회원기능과 AI 추천 매칭 기능을 통해 구직자와 구인기업간 직접 매칭도 가능해져 활용도가 높아졌다.

기업은 구인 공고별로 전문 상담사를 통해 우수인재를 추천 받아 채용할 수 있고, 인재 검색을 통해 직접 채용을 진행할 수도 있어 기업별 상황에 맞춰 서



중진공 ‘일자리매칭플랫폼’

/중진공

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구직자는 중진공 정책자금 지원이나 수출지원 사업 참여 등을 통해 검증된 안정적인 기업의 구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중기부 유망중소기업 200개사 모집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추진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해외시장을 선도할 유망중소기업 200개사를 모집한다.

중기부는 내달 9일까지 올해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매출규모 100억원 이상, 수출규모 500만달러 이상 기업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된다. /김승호 기자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경기도 화성시 야산에 F-5E 전투기 추락 /사진 뉴스스
▲ 기업들, ‘노동이사제’ 통과에 “자율 침해·노사갈등 심화” 우려

▲ 오스템임플란트 횡령범 가족 5명 입건 공모여부 조사
▲ 부산 대형마트 5층 벽 뚫고 추락 택시 속도 ‘시속 70km’



▲ 정부 정책에 ‘탄소중립’ 포함…기후 변화 영향 평가제 등 시행
▲ 광주 외벽 붕괴 건설현장 일대 정전…교통신호기 불능 /사진 뉴스스